

불의엔 주먹 먼저 나가는 '꿀통 형사'

영화 '결갑스' 이성경

“무거운 소재 유쾌하게 풀어낸 것이 ‘결갑스’의 매력 액션·유머 코드 잘 맞아 ...자동차 추격전 촬영 재미”

“영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배우 이성경(29)이 오는 9일 개봉하는 영화 ‘결갑스’로 형사 역할에 도전했다. ‘결갑스’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쫓는 내용을 그리는 코미디 액션 영화다. 기존 형사물과는 달리 라미란과 이성경, 여성 두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8일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성경은 “극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 관객들이 어떻게 볼지 감이 안 온다”며 긴장되는 마음을 전했다.

“결갑스”는 5년 전 기획된 영화지만 최근의 ‘비닝션 사태’와 똑 닮은 이야기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다.

이성경은 “영화 속에 사회적 이슈가 담겨있어서 걱정됐지만, 관객들은 좋은 영향만 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겁게 다룰 수 있는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낸 것이 ‘결갑스’의 장점이예요. 그 유쾌함 속에 잔잔한 여운과 메시지가 있고요. 진지해질 만하면 웃겨 버리고 틀어버리는 것이 영화의 매력이에요. 액션도 매달리고 영기는 등 현실감 있고요. 영화의 자잘한 유머 코드도 저와 잘 맞았어요.”

그는 “최근 여성 중심 영화가 많이 나오는 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불의를 보면 주먹 먼저 나가는 강력반 ‘꿀통’ 형사 지혜를 연기한 까닭에 액션 장면도 소화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카체이싱 장면이 눈에 띈다. 이성경은 “원래 운동신경이 있는 편”이라며 웃었다.

“액션 스푼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액션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됐죠. 추격장면을 찍을 때 밀장이 얇은 신발을 신었더니 나중엔 골반에 충격이 와서 질뚱거리게 됐어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았죠. 카체이싱 장면은 도산대로에서 촬영했는데, ‘내가 자주 다니는 이 거리에서 촬영하는 거야?’라는 문물함이 있었죠. 도로를 통제하고 찍어야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요. 다시 찍어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그는 “형사 역할을 하기 위해 강력반에 근무하시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등을 찾아봤다. 섬세한 수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협장을 담당하는 분도 계셨다”며 “생각보다 강력반 형사들도 거칠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극 중 시누이-올케 사이이자 함께 사건을 추적하는 미영을 맡은 라미란과의 호흡도 자랑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후배이자 파트너로서 부족하니까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죠. 내가 부족해도 항상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감사



했죠.”

모델 출신인 이성경은 2014년 드라마 ‘팬텀’, ‘사랑이야’로 본격 연기 활동을 시작해 이후 드라마 ‘여왕의 꽃’ (2015), ‘치즈인더트랩’ (2016), ‘닥터스’ (2016), ‘역도요정 김복주’ (2017),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 (2018), 영화 ‘레슬러’ (2018) 등에 출연했다.

이성경은 “연기를 할수록 부담과 기대가 동시에 생긴다”고 털어놓았다.

“주변에서 점점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들을수록 부끄러워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요. 나랑 연기하는 사람이 불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합뉴스

광주MBC, 5·18 특집 프로그램 다채

14~28일 다큐 5편 방송 ...라디오 '5·18 스마트어링' 생방송

광주MBC가 5·18 39주기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18 주간 동안 ‘임을 위한 하모니’ 등 다섯 편을 5.18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14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되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2006)는 5·18 당시 국가폭력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아픔과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15일 오후 8시 55분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2016)는 5월 광주의 참상을 알리다가 희생됐으나 5·18의 기록이나 평가에서도 배제돼 온 희생자를 주목한다.

21일 오후 8시 55분 ‘그의 이름은’ (2017)은 집단 발포 직후 당시 미 백악관 관료들의 대책회의 수기 메모 등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를 추적했다.

22일 밤 10시 55분 ‘두 개의 일기’는 한국 민주주의를 양양간 윤상원 열사, 전태일 열사 두 사람의 관계를 일기를 통해 조명하며 항쟁의 뿌리를 탐구했다.

28일 밤 10시 55분 ‘임을 위한 하모니’ (2019)는



‘임을 위한 하모니’

‘오월소나무합창단’의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로 생긴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지배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탐사했다.

18일 오후 1시부터 세 시간 동안 AM과 FM 라디오를 통해 동시 생방송 되는 ‘5·18스마트어링’은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에서 진행된다. 시민 1000여 명이 5·18사적지로 구성된 들볼코스, 치유코스, 자주코스, 주먹밥코스 등 4개의 코스를 직접 걸으면서 5·18의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되새겨 본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

K팝 그룹 사상 최단 시간

결그룹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사상 최단 시간에 유튜브 3억뷰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지난 달 5일 공개된 미니앨범 타이틀곡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는 7일 오전 4시 53분께 유튜브 조회수 3억 뷰를 넘겼다. 이는 공개 32일 4시간 만의 기록으로, 3억뷰를 넘는 데 68일이 걸린 이전 히트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조회수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블랙핑크는 이밖에도 ‘뚜두뚜두’가 7억뷰, ‘마지막처럼’과 ‘봄바야’가 5억뷰, ‘불장난’과 ‘휘파람’이 3억뷰, 제니의 솔로곡 ‘솔로’가 2억뷰, ‘스테이’(STAY)가 1억뷰를 기록해 데뷔 이래 발표한 모든 뮤직비디오가 역대 뷰를 넘겼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회 쇼티 어워즈’(Shorty Awards) 뮤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1번째 뉴욕에서 열린 ‘쇼티 어워즈’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개인과 기관 등을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여름야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벵게(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40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이사 콩도령 2		25 꾸러기 석사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55 UHD 스텐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착상 위키 2 30 TV 유지원	25 BBB삼총사의 모형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전국시대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보트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5 가로채널(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계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55 SBS 8 뉴스
8	30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30 글로컬24 55 제보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50 KBS 뉴스9			
10	50 KBS 스페셜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벵커	00 녹두꽃 감동편 1~8회 감동편 -사람, 하늘이 되다
11	45 UHD 스텐터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색션 TV 연예통신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40 KBS 뉴스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쿵
05:30 통일의 길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기행(재)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00 원더볼츠(재)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바지락 두부조림과 오이나날)	19:1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7:30 출동! 슈퍼킹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9:30 EBS 뉴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30 책과 피자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0:40 세계테마기행 <볼케이노 어드벤처, 아시아 화산섬 기행 화산섬, 보물섬이 되다, 달>
08:45 칼칼라 뷔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나의 정원으로 오라 4부 편백나무 숲길 따라 >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몰랑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출동! 슈퍼킹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칼라 뷔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나뭇잎차와 가지까스무침>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48년생 재자리결음만 하게 된다. 60년생 빈 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72년생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84년생 파문을 몰고 오면서 예상치 못 할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84	42년생 속단 하고 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도량이다. 66년생 북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78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9, 26
37년생 누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49년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61년생 형세의 변화무쌍함을 먼저 헤아려 볼 일이다. 73년생 진중하게 살피면서 나아가야 하므로 무리하지 말라. 85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31	43년생 바탕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한계 정장에 봉착한다. 55년생 고뇌에 찬 하루가 될 것이다. 67년생 무의미한 판국이다. 79년생 조정이 보이거든 조처해야 할 것만 악재를 원천 봉쇄한다. 91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통제가 돼버릴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31, 85
38년생 준비 한다면 능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실시간으로 체크하자. 62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자. 74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86년생 실재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6, 19	44년생 규모에 맞게 대처해야 급락을 예방한다. 56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68년생 지속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느니라. 80년생 흥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92년생 오랜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바가 깊고도 크다. 행운의 숫자 : 75, 16
39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51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63년생 별일 없을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75년생 강력한 자국을 받게 될 날이다. 87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속고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3, 27	45년생 기대도 컸던 만큼 끝나고 나면 많은 미련을 남기게 된다. 57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69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81년생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왔느냐가 관건이 된다. 93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9, 63
40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52년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명적인 단계에 놓여있다. 64년생 가장 원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판국이 이르렀다고 본다. 76년생 가법계 봉합 될 가능성이 높다. 88년생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51, 01	34년생 진정한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46년생 의심스런 점은 꼭 문외해 봐야 한다. 58년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성국이 조성된다. 70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82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2, 94
41년생 내실 있는 과정이 중하므로 관리에 철저 하라. 53년생 모순점을 배제하라. 65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77년생 지향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다. 89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7, 88	35년생 물이 깊은 곳이라야만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47년생 종류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니 구분을 잘 해야겠다. 59년생 다목적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라. 71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83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한다. 행운의 숫자 : 94, 37